

사 설

사찰의 '산 지킴이'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물부림 치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개발지상주의의 망령에 들쭉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주주의, 그리고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관료의 물지각이 함께 어우러져 모든 생명들이 함께 누려야 할 환경을 무차별하게 파괴시켜 놓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것에 대한 조급한 인식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선심성 정책에 귀중한 문화재들이 필박한 수난의 위기에 몰려있다.

으로 제도와 법을 개정해도 시인할 수 없게 거꾸로 그나마 의지가 되던 보호막을 걷어버린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시대 역행적 정책을 제때에 막지 못한 종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하여 여러 대입법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한편 다행한 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알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릴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결의 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교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불교라는 울타리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앞서가는 실천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직접 이해관계가 닿아있던 목소리를 내는 종교로 인식되는 한, 사찰환경과 문화재보호 운동도 종교적 이기주의로 치부될 따름이다.

경주를 관통하는 고속철을 놓아 세계에 드문 천년고도이며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던 무지한 발상이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찰의 수평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 문화재 도난 도둑과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거두어버린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은 바로 오늘의 일이다. 역대의 정권들이 어찌면 이렇게도 한결같이 문화와 환경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反)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해인사, 월정사, 석남사 등 전국 주요 사찰들이 산지킴이에 나서 환경단체,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불교를 통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더욱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 이념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러한 운동에 전국의 모든 사찰이 참여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가야 사찰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 환경과 불교 문화재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찰들에서 보호를 해 왔기에 유일한 대규모 녹지로 전국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찰림들이 이만큼 보존돼 왔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불교의 성보들은 단지 한 종교의 성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불교가 도맡아서 이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점을 평가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들을 보존하는데 나서서 방향

조계사 성역화추진위 출범

고산스님 "사부대중 동참" 모연문 발표...내년 4월 착공

조계종총무원회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했다. 출범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단성스님과 부의장 도원스님, 석주 종산스님,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도후 해광 법장 보광스님 등 11개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장 법등, 부의장 명진, 종회의원 영배 학단스님, 서문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중정교사 발표, 축사, 성역화사업 설명, 발원문 모연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이날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이 대독한 모연문을 통해 "총무원청사 건립은 새롭게 일신하겠다는 우리 승가의 다짐이며, 부처님의 유업을 같이 계승하겠다는 중도들의 발원"이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축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원정사를 지은 급고독장자처럼 원력만 지중하면 반드시 성대한 회향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중앙종회도 이 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출범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착공 시기와 시공사 선정은 사실설계도가 마련되는

내년 4월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3면) 집행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집행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나누고, 기획위원장에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재정위원장 자승(총무원 재무부장), 홍보위원장 만성(총무원 기획실장), 조직위원장은 계성(교육부장) 지현(종회의원) 현진(포교부장) 스님이 각각 맡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7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거행하고 대작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고산스님 '성역화 불사' 바쁘게

총무원청사 건립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발원문이 바쁘게 있다. 고산스님은 원로회의 초청 간담회를 6일 서울 필동 한국외대에서 열었다. 석주종산스님 7명의 원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총무원장은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원로회의장 탄성스님은 추석 전 원로회의를 열어 청사 신축불사에 중도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이어 8일에도 종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종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 종회에서 결의한 특별회계까지 책정된 사업이니 중앙종회에서 끝까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이후에도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열리는 '자비의 나눔' 대회에 참석, 성역화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스님대상 첫 전문포교교육

조계종, 11월26일까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문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연)은 9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2~4시 조계사 강의실에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 강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이번 교육이 예상외로 높은 관심을 끈 것은 일반 포교 전문교육에 목말라하

고 있는 증거"라면서 "스님들이 반드시 이수하는 포교전문교육 및 재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종단 행정에 사 포교에 진력하는 스님들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는 정원 40명에 60명 이상의 스님들이 원서를 냈으나 강의공간이 협소해 48명만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스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28명)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진흥회해체 사실무근"

종단진흥회 회의결의

종단진흥회 회의 결의로 단결해 불교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던 지난 8월 9일 종단진흥회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종단진흥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종단진흥회는 8월 3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종단진흥회가 해체되었다는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참석 전원의 만장일치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해체론과 관련해 사무총장 남정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승총 총무원장 혜정스님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

다. 종단진흥회에는 법화종 총회종 해동종 대각종 미륵종 대승종 등 18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14개 종단 총무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공원입장료 폐지" 결의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해광)와 국립공원에 관람료사찰주지회의는 7일 불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당일 사용 방침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결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은 총무원 사회부에서 마련키로 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 강원도 인제 백담사(주지 마근)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백담사에는 보물 제1182호 목조아미타좌상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1호 석가사리탑이 있다. 관람료는 1200원. 정성운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특위

합동조사단 구성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학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는 9일 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승가대 신축공사 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종회 의원 9인(영남대 원정영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교육원 교육부장,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및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포학사에 대한 실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단 집행부와 종회, 학교측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합동조사를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 이전학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성주사·장유암

10월에는 현운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종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사지 토굴을 찾고 수도하며 불발을 수로국에 전한 호시가 됐다 유서 깊은 장유암도 참배합니다.

-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4만2천원(조식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포아(www.buddho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계과인회

현대만평

현 대 만 평



섬마다 부처님을

학인들 사미의제 수용의사

29일 학인연합회장단 회의서 결의할 듯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이 10월부터 사미(니) 의제의 전면 실시를 결의하고 사미(니)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중무방침을 밝힌데 대해 강원, 기초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이 대체로 수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전통강원연합, 중앙승가대 총학신회,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의 학인 대표들은 29일 총무원 1층 청사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의장단 회의를 열고 종단의 사미(니) 의제 전면 시행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

단의 5대 중무방침을 수용하되, 행자교육원 14기 이후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는 유보조항을 둘 것을 요청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사미(니)의제 전면실시는 그동안 충분한 시행 유보기간을 둔 만큼 예외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문제가 노출된다면 추후라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성 명 서

근간 불교계 신문에 수차례 걸쳐 마치 종단 내부에 분쟁이라도 야기된양 무경우하고도 일방적인 광고를 보도하여 불교계에 누를 끼치고 안으로는 중도들을 현혹시켜 종단의 질서를 물리게 하고 있는 종원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의 망동에 대하여 전종도들과 총무원측에서는 말없이 귀추만을 예의 주시해 왔으나 끝내 자제와 뉘우침이 없이 종조앞에 부끄러움을 외면한채 온갖 망동을 자행하고 있음으로 더 이상 좌시만을 할 수 없어 삼보전에 참회하고 종조앞에 참회하며 만부득이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밝히는 바이니 전 불교도와 중도들은 깊은 성찰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금번 이 법판을 야기시킨 해풍행위자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삼보와 종조 원효성사 앞에 참회하며 부질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 음

- 1. 종단 임원회의 건**
1999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경남교구 총무원 능인포교원에서 개최된 종단 임원회의는 그 동안 중정스님으로부터 총무원장에게 1997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시 중정선서를 통하여 중정스님 스스로가 중정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단운영체제를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 운영토록 하라는 선시에 의하여 중회의원 전원의 환영리에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한 것을 다시 중정중심제로 환원시키고 총무원 서울사무국을 부산 금수사로 이전하고 1999년 7월22일 중회를 소집하여 담론 재들을 처리하려는 지사가 있었음으로 이 문제는 총무원장 단독으로 결정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에 임원회를 개최하고 중론을 수렴하여 처리하려고 한 것을 마치 해풍행위를 선동한양 신문지상에 광고를 왜곡하여 보도한 사실이며,
- 2. 중령 선포 건에 대하여**
중령 제3장 제15조 제2항과 제2항에 명시된 중령의 권한을 중령중심의 제정 및 선포와 중령이 정한바에 의한 종단의 임명권으로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단서에는 [중령의 고유와 중령으로서 중령중심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중령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남용치 못하도록 분명하게 입법화된 것이며, 1999년도 발생한 종단의 법난으로 하여금 '문규판'과의 재판과정에서도 중령의 고유와 중령은 중령중심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 3. 중앙종회의 해산**
1999년 7월 23일자 불교신문, 법보신문등에 광고한 중앙종회 해산 건에 대하여서는 중앙종회의 해산은 중령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종회는 본 종단의 최고 입법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써 본 종단이 해체되거나 해산하고자할 때에 한하여 그리고 종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중령 제3장 제29조와 제 30조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중앙종회를 의장이 소집하여 의결로써 처리하게 되어 있지 중정이

- 중령으로 중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 4. 본 종단의 최고 입법기관은 중앙종회입니다.**
총무원 서울사무국 문제와 중정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로 중령중심제를 개정 및 제정한 것은 중령 제26조에 의거 중회의 가능 제1항 중령 개정 및 중령제정의 중회 결의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고 중령 제26조에 의한 법안 공포는
① 중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총무원장은 10일 이내에 중정과 총무원장의 부서로써 공포하기로 한데 대하여 하등의 하자가 없는 의결이었음을 알립니다.
② 이송된 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이의서를 첨부해서 중앙종회에 환부하여 재의케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③ 확정된 법안은 중령으로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1999년 7월16일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안으로 된 1, 2항은 중령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중정과 총무원장의 부서로써 중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의되어 공포된 사항을 재학 인한 것뿐입니다.
 - 5. 중정이 중회를 소집할 수 없다.**
중회 소집권은 중회의장에 있는 것이지 중회의장이 알지도 못하는 중회 소집공문을 중회의장명으로 작성하여 중회의장 직인이 없던데도 불구하고 중정 직인을 멋대로 조작하여 그 위조 도장을 찍어 소집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이며 인장도용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는 불법성에 대하여 실로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중정해의 무지가 발로되어 본 종단의 명예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령 제29조(회기) 제2항에 의거 종단 내에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시에는 총무원장과 중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회의장이 임시중회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중령 제30조(중정사) 제1항에 중정중심제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회의장과 중회 분과위원회가 중회의 동의권과 감사권을 대행하고 다음 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있는바,
① 중정에게 중회를 소집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음을 물론이고,
② 중정이 중령으로 중회를 해산시킬 권한 또한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본 종단이 1987년 이후 수년동안에 걸쳐 법란으로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오다 현 총무원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겨우 종단의 질서가 확립되고 중세도 확정되어 명실공히 종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1999년 8월 3일자 불교신문, 법보신문 등에 광고된 소위 중앙종회 해산에 관한 중령선서는 일부 퇴출자들의 허욕에 눈이 어두워 날조된 사실임을 전불교도와 중도들에게 밝히며 금번 이 법판을 야기시킨 일당들은 삼보와 원효성사 앞에 깊은 참회있기를 전종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본 공문서에서 인용된 법조항은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된 이전의 (구) 중령의 조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1999) 9월 15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중회 참석의원 일동

737-8881